제로원과 하나님사랑 이웃사랑

(마 22:34~40)

34.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35.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제로원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제로원의 원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과 내가 동일시되어서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로원의 원리를 신앙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제로원의 원리와 기독교의 가르침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이 말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 조금 다르지요? 신명기 6장 5절에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라고 하고 오늘은 '마음과 뜻과 목숨'이라고 하고 마가복음에는 같은 내용의 본문이 마음과 목숨과 뜻에 신명기 6장 5절에 언급된 힘이 보태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대할 때에 나타나게 되는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의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마음을 떠나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숨이라는 말도 우리 육체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프쉬케'라고 하는데 이 프쉬케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영어에서 심리학을 뭐라고 그럽니까, 싸이콜로지 (psychology)입니다. 정신을 연구하는 것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는 얘기는 넋을 다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혼을 다한다, 이런 뜻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즉 몸의 목숨이 아니라 원어 상으로는 넋을 다한다, 혼을 다한다, 정신을 다한다, 이런 거니까… 힘도 뜻도 이 모든 것이 마음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 하나로 생각해도 충분합니다마는 그 정도로 마음의 각양의 기능과 작용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

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얘깁니다.

한 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못 합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주님께서는 훼손하고 싶으신 마음도 없으시고 수정하고 싶으신 마음도 없으시고 '지켜라'라는 명령을 고집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이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 보면,
'마음과 혼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그러면 몸 빼놓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하나님사랑에 투입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마치 생선을 사면 생선의 내장을 다 쏙 빼는 것처럼 몸 말고는 인간의 구성요소 전체를 다 속사람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게 몸밖에 없어요. 나 자신에게서 남는 거라고는 몸밖에 없는데 두 번째 계명은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나 자신이라는 인간의 구성요소 중에서 마음 빼고 정신 빼고 뜻 빼고 힘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몸밖에 없는데, 몸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몸값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존재이유에 몸의 값어치가 있어요. 그 몸의 값어치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웃사랑이라 이겁니다. 이웃사랑이 몸이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말고 인간의 구성요소 중에 마음과 정신과 힘과 뜻은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몸 하난 남아있는데 이 몸은 온전히 이웃사랑에게 다 드리라는 겁니다.
다 분해되어 버리고 이제는 없어요.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오늘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나쁜 의도로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지만 이 당시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그러니까 랍비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냐 하면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에게 가장 큰 이슈를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십계명에서 출발해서 율법 조항이 613개가 되었습니다. 613개가 되고 보니까 도무지 이 조항을 다 기억할 수도 없고 지켜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248개 조항과 365개 조항으로 두 부류로 나눕니다. 248개 조항은 좀 더 중요한 조항, 그리고 365개 조항은 덜 중요한 조항으로 나눠서 더 중요한 것을 지키노라 보면 365개 조항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소홀하게 될 수 있겠지만 할 수 없는 일이다. 겨우 이렇게 정해서 끙끙대고 있다가 주님께 나와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어 보는데 주님께서 단 두 마디로 정리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 딱 한 마디로 정리가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613개를 두 개로 줄였지만 613개의 모든 의미가 두 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13개의 율법의 조항들의 무게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줄여진 두 계명의 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이걸 613개를 두 개로 줄여 놓은 거니까…
주님께서 613개 율법조항을 모르셨겠습니까? 압니다.

613개 조항을 이루지 못하면 두 개 조항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무게가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613개 조항을 전체로 총괄할 수 있는 정신을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해 버리십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관계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계시고 이웃이 있고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613개 조항을 지키려는 이 당시 선택받은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냐 하면 하나님 빼놓고 이웃 빼놓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 자신을 이루고 있는 요소 중에서 마음과 정신과 힘과 뜻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고 네 몸은 온전히 이웃사랑 하는 데에 쓰라"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에 서있는 거예요.

하나님사랑 안 하고 이웃사랑 안 하고 나만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과 이웃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의를 위해서 세리가 존재합니다. 세리를 보면서 내가 의롭고 나 자신의 의를 위해서 복된 삶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방인이 존재합니다. 이방인의 저주받은 삶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 받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도 나 자신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너 자신의 구성요소 중에 하나님사랑을 위해 속사람은 다 써버리고 겉에 남은 몸은 오직 이웃을 위해 써라' 거꾸로 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인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빼고 이웃 빼고 나 자신만 사랑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도 불가능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내 사랑을 위한 것으로 뒤집어서 바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의 정신이 오늘날도 만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성공하는 기업의 여덟 가지 습관', 새벽형 인간, 아침형 인간,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 이 모든 것이 다 나 자신을 위한 율법주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두 계명을 고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 둘의 모순, 당위성과 현실성의 모순을 주님의 십자가복음이 온전하게 해결해 준다는 것이에요.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사랑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무척 어렵게 생각하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수고로움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땀을 흘리며 뭔가를 하나님께 충성 봉사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얘깁니다.

이러한 내용의 간단한 힌트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에서 볼 수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옆에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리아를 더 예뻐하시고 마리아를 더 훌륭한 행위로 취급을 하십니다. 하나님사랑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더라는 얘깁니다. 수고롭고 땀 흘리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봉사 안 하면 하나님사랑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기는데…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충성 봉사는 하나님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사랑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십자가복음을 통하여 제로원의 원리가 활발하게 작동되어질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십자가 제로원의 원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삼중축복의 과정이 그대로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에 적중되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되는 지독하게 어려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중에 저절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이웃사랑,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축복을 받아 누리는 과정 중에 저절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계명이 율법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어서 축복을 누리는 중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십자가 복음이 가져다주는 삼중축복의 힘이에요.
축복을 받아 누리면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사랑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웃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내용을 한 번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사랑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피조물의 신분이라는 것은 창조주에게 받는 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잘 받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 애인이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다시 돌려 줘 버립니다. 이건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선물을 주는 애인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향하는 사랑이 있지만 내게로 오는 것을 받음을 통하여 상대방을 또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드리려 하지 말고…
돈 많은 남편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와 함께 하는 시간은 전무한데 돈이 많으니까 외국에 나가서도 국내에서도 우편으로 늘 명품을 보내 줍니다. 같이 있지는 않아요. 이게 사랑입니까?
그 명품 들고 아내는 천상 가정을 떠나서 딴 짓 하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도박판에, 춤판에…

함께 있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소재를 알아야 함께 있지요.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를 부를 때 어디서 부르십니까?
엄마를 찾을 때 부엌에 가서 엄마를 찾아요. 아버지를 찾고 싶을 때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으

로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내 몸과 내 힘과 내 뜻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재는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고 함께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사랑이라는 계명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내 죽음으로 동일시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계명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계명, 신앙인이 누구예요? 주님의 십자가사건을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신앙인이라는 것은 십자가사건을 받아들이고 연합한 자들입니다. 주님과 죽음에서 연합한 자가 부활에서 연합하고 승천에서 연합합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옆에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주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참여의 축복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 향하고 있고 하나님과 대화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그 기쁨이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으로 전달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주님이 뭘 하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십니다. 그 주님의 대화의 내용과 마음들이 성령을 통해 내게 전달이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할 때, 충성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꼭 기억하세요.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주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빠져서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꿀송이 같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입이 아름답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얼굴이 아름답고…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식사 때가 되니까 주님이 식사를 하셔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도저히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식사 후에 주님과 만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식사 후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거나 사랑이 약한 겁니다.
지금이라야 돼요. 지금. 지금 같이 있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만약에 젊은 남자가 사법고시가 끝난 다음에 만나자고 하고 사법고시 준비하고 있는 동안 하나도 보고 싶지도 않고 그립지도 않고 같이 있고 싶지도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지금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식사 후에 같이 있어도 되는데, 식사 후에 말씀을 들어도 되는데 지금 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입니다.

제가 50이 좀 넘었는데 가만 따져보니까 한 12년 정도 외국생활을 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거의 한 주도 예외 없이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제가 전화를 걸 새가 없어요. 국제전화를 늘 어머니가 먼저 하십니다. 전화하실 때마다 첫 마디가 "야야, 지금 거기 몇 시고?" 그렇게 시차를 말씀드려도 연세가 드셔서 계산이 잘 안 되시고 당신이 한가하실 때 전화를 거십니다. "지금 거기가 몇 시고?" 이 지금이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한국은 토요일 오후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는 금요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요일이 다릅니다. 시간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만나고 통화하는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한국은 토요일이지만 지금이고 미국이나 캐나다는 금요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둘이 만나는 건 지금이에요.

우리가 이 몸이 죽은 다음에 나중에 천국 올라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다, 영생의 포인트를 죽음 이후로 이 세상의 삶이 끝난 이후로 둔다는 것은 사랑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 만나고 싶고 지금 같이 있고 싶고 지금 함께 마주보고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현상의 제약 때문에 같이 못 있더라도 지금 있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다로 갈라져 있는 한국에 있는 애인과 미국에 있는 애인보다 더 쉽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 안에 들어감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제로원의 원리가 어떤 일을 합니까?
마음과 목숨과 혼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을 빠져 나가는 것이에요.
TV드라마를 보다보면 우리의 넋이 쑥 빠져 들어가잖아요. 드라마 안으로…
드라마 속이 재벌가의 행복한 삶이 나오면 옥탑 방에 앉아서도 그 재벌가의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마찬가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이 세상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한국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미국에 있는 아들과 지금 통화를 해야 되는 어머니처럼 천국에 계신 아버지와 내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만나야 되고 지금 통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세상 형편을 바꿔주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으려고 아버지가 그리워서 아버지와 대화하려고 지금.

그러려면 전부 다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향하려면 전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무(全無)가 있어야 됩니다. 전부 all your soul 이 되려면 nothing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nothing 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으니까. 십자가로 세상에 대해서 nothing(전무)가 되어야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께 향할 수 있고 전부를 다할 때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참여하는 거라 이거에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오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을 받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게 바로 관찰입니다. 내 몸이 아직 이 땅에 남아있고 내 몸과 연관되어진 내 삶의 환경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내가 하던 염려는 다 하나님께로 가버렸으니까 내 마음 대신해서 아

버지의 마음이 작용을 하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풍부하게만 인도를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거기에 궁핍의 환경이 주어질 때가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궁핍할 때도 주어지고 풍부할 때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는 경륜과 사랑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중단된 게 아닙니다. 궁핍이 올 때도 환란이 올 때도 이 세상에 내 몸이 처한 삶의 환경이 풍랑 속에 들어갈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입장에서 이젠 거꾸로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세상에 마음이 머물고 있을 때 십자가를 통해 하늘로 마음이 올라갔잖아요, 하늘로 올라간 상태에서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을 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궁핍이 주어집니다.
왜? 사랑은 끝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풍부가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풍부를 받아들이기는 쉽습니까? 아니요, 풍부를 받아들일 때 풍부에 마음이 붙어버립니다. 그걸 십자가를 통해 보면서 십자가에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난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풍부에 대해서도 죽은 자다.
그럼 비천함이 주어질 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자이므로 이런 비천함이 내게 아직도 과하다'
비천함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능력 주시는 자'라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우리는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라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만 따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니에요.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예를 들어 야구선수가 수비를 봅니다. 수비를 보는 야구선수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이 어디로 떨어지든 달려가서 받는 것이 능력입니다.
또 배트를 들고 배팅박스에 들어서면 뭐가 능력이 됩니까? 오는 공을 잘 맞추는 게 능력입니다.

이 세상을 내 마음이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을 care하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어느 사건 할 것 없이 은혜 아닌 게 없고 사랑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선물로 여기면서 그것이 궁핍일지라도 풍부일지라도 저기 멀리 떨어지는 공이라도 달려가서 받는 것이 능력인 것처럼 궁핍이라는 모양

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때 그 궁핍이라는 모양의 선물을 잘 받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 이 궁핍 정말 싫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 판단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기준을 가지고 거부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자족할 줄 아는 방법을 배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족함, 만족함, 감사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반부의 사랑의 역사는 **'관찰'**에서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로 관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끄시는 모든 것이 선물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궁핍함조차도 부유함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교만해지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재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 전무(全無)해지고 다주고 제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부(全部)가 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 관계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 지금도 주님은 천국에서 아버지하나님과 마주보고 있잖아요. 바로 그 주님 안에 지금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충분히 하늘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사랑이 곧 축복인 그런 놀라운 경지를 경험하고 있을 때,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을 보면 때로는 풍랑이 일고 때로는 평온하고 때로는 부유하고 때로는 궁핍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족하며 받아들이며 하나님사랑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웃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어제 본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볼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나 자신으로만 말하자면 지금이라도 이 몸을 떠나고 싶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몸이 죽음으로써 몽땅 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들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부족할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런데 내 몸이 남아 있는 것,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내 속은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옆에 있고 천국에 있다. 내 몸이 지금 왜 남아 있느냐?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이다, 나를 위해서는 눈곱만큼도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웃사랑이 시작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여의 복과 관찰의 복을 통하여 온전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하나님사랑을 이룬 자들에게 있어서 몸을 죽이지 않으시고 아직까지 살려두고 계시는 이유는 이제 그가 움직이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식을 만나서 말하면 자식을 위한 것이 되고 나의 기쁨을 위해 자식을 끌고 가려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나의 요구는 다 잘라져 버리고, 나에 충족되고 싶은 욕망은 끝나버렸고 자식만을 위한 말과 행동이 되고, 배우자를 만나면 배우자 간에, 직장동료를 만나면 직장동료 간에 오직 그들을 위한 시간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나를 위한 것은 천국참여와 세상관찰을 통하여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으니까…

참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하나님사랑을 생각하면 제 자신이 그래요. 그저 죽을힘을 다해야 되는 줄로 알았어요. 뭔가 기도도 그냥 진땀을 흘리는 기도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뭡니까? 애인이 지금 그리워서 전화하는 거예요. 자식이 보고 싶어서 한국에서 날마다 전화하시는 어머니의 마음, 전화가 얼마나 고마워요? 기도라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게 의무예요? 특권이고 축복이지요.
기도가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지금 만날 수 있으니까…

그 기도를 통해 내가 십자가를 다시 붙잡고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에 승천에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내 마음과 뜻과 힘이 다 머물러 있으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느끼시는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또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기도 때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내가 함께 누리던 모든 영광을 저들에게도 허락하시사…'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아버지 옆에서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더 잘…, 온전히… 없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냥 저절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내가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또 거꾸로 이 세상에서는 주님이 내 몸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모든 행동들이 다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웃을 대하시는 거죠, 내 몸을 통해서.

내 마음은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몸은 내 몸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중연합, 주님의 십자가에서 동일시되면 뒤따라오는 삼중축복에 의해서 주님 안에 들어가 연합을 통하여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연합,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의 뜻과 의도를 따라 액션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다 이웃을 위한 것이 되어서 이웃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과 하나님사랑은 축복이에요.
축복이 이루어질 때 이웃사랑과 하나님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밝히 바라보는 거예요.
제로원의 원리가 살아 움직이는 그곳에 내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 전무(全無)하게 마음도 전무, 뜻도 전무, 정신도 전무, 힘도 전무할 때 세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TV드라마 속으로 들어가듯이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늘에 함께 참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사랑이고 또 내 몸이 처한 이 삶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심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다볼 때 내 삶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궁핍하고 보잘 것 없지만 이 속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 집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온전히 충족되어질 때, 드디어 내 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액션을 취해가실 때 취하는 것마다 이웃사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로원의 원리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꿈틀거리고 용솟음치고 있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밝히 보며 주님과 동일시의 연합을 통해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고 모든 613개 조항의 율법의 정신이 완전히 다 충족되어지는 이 크고 첫째가는 두 계명이 우리에게 생활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밝히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이 왜 복음인지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왼쪽에서 봐도 오른쪽에서 봐도 어쩌면 이렇게 완벽할 수 있는지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총집결된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가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 십자가를 밝히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을 흐리게 하는 많은 요소들을 이기고 십자가를 밝히 봄을 통하여 삼중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기쁨으로 실천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